

무용예술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성경적 분석

박순자(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무용학과)

요약

춤추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친근한 현상이다. 이는 무용예술이 인류 탄생 이후 역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변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무용이라는 어휘가 익숙하여 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전문적 심화과정을 통하여 무용예술이라는 전문적 분야를 개발하며 세계적 예술의 분야로 성립된 것이다.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종교적 힘과 관계성은 늘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종교성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용예술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인간 및 만물이 인간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창조주에 의한 피조물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늘날 국내의 무용예술 전문가 즉 무용전공자들(예술 중.고등생, 대학교 무용전공생, 무용예술단원 등)의 성향을 보면 외모중심 성향, 테크닉 위주의 무용예술 추구로 여성 중심의 탐미주의적 공연을 당연시 하고 표상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 중심의 소극적이고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서 형성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본질적 무용예술의 발전 및 형상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무용예술(무용전반의 장르 포함)의 정의를 규정하는 구성요인들을 성경적에 비추어 살펴 보았을 때 첫째, 외형화 중심에 있었던 무용예술의 신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외형적 관점에서 내.외면의 조화를 이룬 인격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무용인의 움직임 역시 선한 물질과 같이 가장 선한 움직임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순전하고 진실 된 생명력을 담은 동작 연구로 예술화 시켜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사상과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넷째, 동작 및 기교위주, 인위적 조명, 작품성과 격리되어 있는 의상, 획일적 분장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인류의 대체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무오한 무용예술로서의 종합적, 심미적, 영원성을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표피적 꾸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외면의 진실과 성실함의 조화로 감동을 주고 받는 것이다. 다섯 째, 예술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듣지 않아도 되는 말과는 달라서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감염시켜 이를 경험시킨다고 하였던 톨스토이의 주장하였듯이 무용인들은 이러한 감염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내.외면의 일치된 성경적 무용의 정의를 무용작품과 움직임에 담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무용예술, 무용, 성경적, 무용예술의 정의

I. 들어가는 말

춤추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친근한 현상이다. 특히 인간은 모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몸짓 내지는 움직임을 자연발생적으로 발현한다. 춤추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춤을

배우기 전부터 춤을 출 줄 아는 상식적, 일반적 현상을 자연스럽게 나타낸다. 한편, 춤추는 것이 좋아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동작을 익히며 테크닉 중심의 무용이라는 개념과 현상에 친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용예술은 인류 탄생 이후 역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동기와 목적으로 변천, 발전하여서 오늘날 무용이라는 어휘가 익숙하여 지는 단계에 이르렀고 전문적 심화과정을 통하여 무용예술이라는 전문적 분야를 개발하며 세계적 예술의 분야로 성립된 것이다.

톨스토이(Leo Tolstoy, 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는 옛날에는 어렵게 인정받으며 때로는 배척되어 오던 예술이 현대에는 만족만 주면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예술의 가치평가는 예술전달의 감정평가요,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며 인간의 선과 악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즉, 인생의 선과 악은 종교에 의해 정해진다고 하였다(톨스토이, 2008, 76).

역사의 발전과정을 보면 종교적 힘과 관계성은 늘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성에서 본 연구자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용예술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인간 및 만물이 인간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창조주에 의한 피조물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Gene Edward Veith, 1994, 62)는 어거스틴이 자연과 예술의 모든 형식은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형식 및 질서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의 무용예술 전문가 즉 무용전공자들(예술 중고등생, 대학교 무용전공생, 무용예술단원 등)의 성향을 보면 외모중심 성향, 테크닉 위주의 무용예술 추구로 여성 중심의 탐미주의적 공연을 당연시 하고 표상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 중심의 소극적이고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무용의 본질(Dick Adams, 2006, 221)은 몸, 정신 그리고 영혼에 있으며, 루스 데니스(Ruth St. Denis)는 신성한 종교적 무용을 출 때 훈련과정 뿐 아니라 마음의 단련까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실적 상황을 타개하고 본질적 무용예술의 발전 및 형상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무용예술(무용전반의 장르 포함)의 정의를 규정하는 구성요인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봄으로 무용예술의 본질에 의거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무용예술 정의의 구성요인 분석

무용예술에 있어 최우선적 매체는 인간의 신체이며 동물이나 기타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간의 본질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무용예술의 정의는 인간의 신체동작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 등을 미학적 법칙에 따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자는 무용예술의 정의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박순자, 2012, 25-28). 첫째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용예술은 음악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음악과 관련된 정의를 살폈으며 둘째는 인간의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 전달하는 것이기에 동작과 미적 조화에 관계된 정의를 살폈다. 셋째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영, 혼, 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정의, 곧 사상과 감정세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동작과 미적조화에 대한 정의가 가장 많았고(39개) 다음으로는 음

악과 관계된 정의(15개)였으며 끝으로 영적측면에서의 정의(6개)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무용예술의 정의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톨스토이가 현대에는 만족만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 인간이 인생을 보는 해석, 인간의 선과 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종교에 있다는 것처럼 무용예술의 정의상에는 통합적인 면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부분적, 일면적 성향의 무용예술인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적 내면과 형상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살펴봄으로 무용예술의 본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성경적으로 살펴볼 요인은 인간(무용인)의 정체성, 신체 움직임의 본질, 사상과 감정의 의미, 미의 정의이다. 상기의 요인 분석은 무용예술의 가치성을 심화시키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그리고 관객이나 무용예술가 모두에게 진정한 예술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Ⅲ. 무용예술 정의 구성요인의 성경적 분석

1. 인간(무용인)의 정체성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이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땅에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 사명을 주신 것이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문화를 사용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김왕기, 1999, 66). 창조는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미적, 예술적 표현방식을 창조하였으므로 예술인 무용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추는 것이 정상인데 인간의 전통과 율법주의에서 비롯한 종교적 법과 종파주의 때문에 인간이 세운 왕에게 예술적인 무용을 세속에 빼앗겼다는 것은(Ann Stevenson, 2012, 13) 마치 사랑하는 내 물건이 도적질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세속에 빠져 방탕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유사한 일이다. 무용인 역시 예술성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관객의 마음에 합한 무용, 세상이 추구하는 무용, 명예나 자기 자신에 만족을 위한 무용을 추구하는 무용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창세기 6장 1-3절에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은 육신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절대 따먹지 말도록 하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창세기 3장 6절) 불순종하여 먹으므로 종신토록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별로 주셨고 남자에게 이마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사는 인생의 벌을 주셨다는 것을 볼 때 무용인이 움직임, 신체자태, 분장을 통한 얼굴의 형상, 움직임의 기법, 의상의 색, 천의 질감, 디자인 등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을 외면하고 우리 소견에 좋은대로 행하며 세속의 형상을 따르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예술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거나 위협적이거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미적 탁월함은 상업주의, 사회적 신분상승, 새로움만을 위한 새로움보다는 열등하게 취급 받으므로 나쁜 예술이 좋은 예술을 몰아내었다고 하였다(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8).

무용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얼굴, 신장, 피부 색깔 등과

같은 외모를 비롯한 모든 것을 자의에 의한 것으로 착각함으로 서로가 우열주의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교만과 자만 등에 빠지는 모습과 풍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 에드워드 비이스(1994, 13)는 좋은 예술과 살 것인지 나쁜 예술과 살 것인지 제시하며 올바른 관점에서 예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을 따질 수 없는 선물이며 예술에는 영적 차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톨스토이는(2008, 239) 진정한 예술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처럼 화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무용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빛는 본질적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용예술의 완성은 내면적, 외면적 구조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용인이 자아상을 형성할 때 외면적 구조에 중심을 두어 내면적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체의 움직임

성경에는 인간의 신체의 움직임의 형용을 통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에(창세기 1:25)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부모를 통하여 태어난 후손들이 부모들을 닮은 외관과 성격, 행동을 닮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하여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내거나 부러워하거나 탈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용인들의 삶에는 무용연습을 할 때나, 가르칠 때, 콩쿨에 참가하여 리허설 할 때, 콩쿨에 경쟁할 때, 공연을 할 때 전 과정 속에 내면의 죄와 행위의 죄를 지을 경우가 빈번하다. 잠언 1장 1-4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톨스토이(2008, 141)는 예술가들이 상류계급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조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방법을 표절, 모방, 속임수, 흥미라고 하였다. 또한 많은 미학자들이 진, 선, 미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표방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긴 시간 그 개념을 지속시켰으나 톨스토이는(2008, 89) 선은 우리 생활의 영원한 최고 목적이며 신을 향하는 부단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반면 미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라 하였으며 미에 골몰 할수록 선에서 멀어진다고 하였다. 상기의 내용은 무용인의 신체의 움직임에 적용하여 볼 때, 아름다운 신체와 동작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톨스토이는(2008, 149) 사람이 진정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며 그 예술인은 동시대 최고의 세계관의 수준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전달하는 욕구 및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종류이던 이것을 위한 재능을 갖추어야만 하

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무용인이 선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연습을 할 때 내면의 정결함, 안정감, 자신감이 생기며 인성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환난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로마서 5:3-4) 것은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가치관이 설정되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즉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어서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잠언 전반에 걸쳐 행위, 몸짓의 분석 결과를 보면 신체 각 부위의 극히 작은 각도의 변화하는 움직임으로서 행위가 표면화 될 때 선하고 악함 등 감정의 다양함이 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잠언 31장 중 6장까지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잠언에 나타난 몸짓 분석>

| 말 씬 | 장:절 |
|---|---------|
|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 1:31 |
|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 3:31 |
|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 3:34 |
|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고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에 품은 네 앞을 끈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 4:24-27 |
|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 6:12-14 |
|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밋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 6:17-19 |
|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 6:25 |

상기와 같이 인간의 내·외면적 상태를 지적한 것을 보면, 내면적으로는 꾀, 포악, 불량, 거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등을 통하여 몸짓이 표출되고 신체부위로는 눈, 눈짓, 눈꺼풀, 손가락질, 혀, 발 등의 신체움직임이 악함, 패역, 다툼, 악한 계교, 이간질 등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인체의 모든 부위에 표현적 움직임이 인간의 사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용예술은 내면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교, 기술, 동작 등에 집중하는가 하면 표현적 신체형성 이기보다는 아름다운 신체 형성 및 기교적 동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좋은 예술이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진 에드워드 비이스의 주장(1994. 64)과 같이 무용인의 신체의 움직임은 내면과 외면의 조화와 일체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사상과 감정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감정, 사상은 감추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어졌기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신체와 움직임, 사상과 감정의 표출을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 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밝혔듯이 21세기 선악과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대로, 좋은대로 행하도록 유혹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갈라디아서 5: 16-21).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형성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사실 외면적인 면은 좋아지는 듯 하나 내면적으로 정서적, 심리적 질병과 불안정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씬 없이 미혹함 속에 빠져 행복, 기쁨, 감사, 사랑, 화목 등은 결여되어 가고 있다. 즉, 무용예술세계의 주제 및 그에 따른 감정들은 진리와 선한 것 아름다운 인간의 고귀한 삶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듯 하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에베소서 5: 3-6) 하였는데 신체적 조건 등으로 무용예술 입문단계에서 겪는 일 또한 자신의 무용 솜씨나 외모가 우상이 되는 등의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에베소서 5: 8-9)는 말씀과 같이 선.후배 관계, 유파별 갈등들이 주의 말씀의 근거대로 해결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 하노라(빌립보서 1: 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위태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할지니라(잠언 23: 16-19)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잠언 23: 27-28)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

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언 24: 9-12) 하였다. 무용 예술의 경쟁적 환경, 특히 긴 교육기간을 통한 적응을 통해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의 속성이 예술의 감정표현 및 주제표현이 비인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양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보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날마다 일어나는 참람한 일들을 볼 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며 불행한 현실을 접할 때가 많다. 이렇듯 무용예술 또한 무용가 또는 무용수 각자의 사상, 감정이 미적으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표출되어 많은 관객에게 삶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끼치기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4) 성경적 미학적 근거

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멋있다, 예쁘다, 잘 춘다 등의 감상 후의 평가적 문장 또는 언어가 일반적 평가이기도 하다. 혹은 신체적 조건, 분장, 무대장치, 조명, 의상디자인 및 의상의 맵시 등에 편중된 감상적 접근 성향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용전공생들 공연에서 눈에 띄는 한 아름다운 무용수를 본 경험이 있다. 출연진 가운데 가장 겸허한 의상, 평범한 모습인데 무용을 통하여 많은 내재된 감정을 아낌없이 표출하였다. 성실, 노력, 진실... 평소 삶의 자세, 통합적, 내재적 모습의 결정체였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으며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 인류는 평생 가장 좋은 것에 대하여 추구하며 좋은 것을 갖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 좋은 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신 것을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며 거짓이나 술수나 악함이 없는 진리인 것이다. 천지 만물을 보자!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이상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영원히 썩지도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표 2. 시편 말씀에 나타난 아름다움 >

| 말 씘 | 장:절 |
|--|--------|
|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8:1 |
|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어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 12:6 |
|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 18:30 |
|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 53:1-2 |
|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 72:18 |
|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 96:6 |
|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 96:9 |
|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 135:3 |

상기의 표와 같이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이 아닌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완전하신 구별된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에 있어, 인간의 삶에 있어 아름다움은 곧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인 것이다.

무용예술의 주매체인 인간은 하나님의 미학적 본체요 소중한 선물인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미의 뿌리로 무용예술은 영원성을 갖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인류에게 무한한 선물이 되어 삶의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무용예술의 구성요인에 대한 성경적 분석을 통해 인류역사에 항상 존재한 무용예술이 사회적, 시대적, 유형적, 신체적 요소 등 제한적 범주에 구속받지 않고 심미성, 영원성을 추구하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예술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IV. 무용계의 현상

본 연구자는 2009년 무용의 미적 가치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2009. p.37). 장기간 대학에서 다양한 무용이론 강의를 통해서, 또 매해 입학하는 무용과 학.석.박사 등의 강의를 하면서 무용예술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계기는 무용예술은 아름다운 것, 미적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일상적 관념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동안, 강의를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무용예술을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물에서의 아름다움의 인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미적체험이 무용미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미적체험이 무용미용 작용되지 않았던 이유는(2009, p.38) 무용에 대한 특별한 목적의식 결여, 무용에 대한 외관적 미적 성향(무용수 신체 및 무용동작의 미에 집중), 무용과 사회와의 관계 즉 영향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무용계 전반에 대한 미래적 사명감들의 책임, 의지의 부족함이었다.

무용계는 대중화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연구들이 적어도 석.박사과정생 정도라면 대체적인 관심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노베르(Noverre, Jean Georges, 육완순저, 1987, p. 9) 무용계에 「서한」이라는 책을 오래 전에 발간하였다. 그 당시 발레 및 무용공연을 결정지을 수 있는 법칙들에 대한 것이었다. 발레 및 무용제작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책이었으며, 12세기 전반에 무용수들의 장단점을 서술하였다. 이 당시 발레 제작 및 의상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설명한 것이었다. 또한 본 서는 안무가(노베르, 1987, p.10)를 위한 것이며 예술가인 무용수들에게 필요한 연극법칙 및 흥미유발을 위한 단순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의 서문에서는(노베르, 1987, p. 13) 소름끼치는 가면파기, 우스꽝스러운 남자용 장발 가발을 없애는 것, 예닐 부인들의 고래 뼈로 만든 허리를 펴도록 하는 거북한 틀 사용금지, 기계적 동작을 미적 감각으로 전환할 것, 의상이 고상하고 정확함, 독창적이며 행동과 표현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였다. 약 200 여 년 전 무용계 및 무용인들을 위하여 저술한 노베르의 무용예술관은 실상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사항이다.

국내의 긴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무용예술의 발전은 지속되어 왔다. 수 천년 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대학교의 무용과 설립, 시.도별 무용단 구성, 중.고등 예술학교, 국가지원 예술단체 및 교육기관과 무용학원 개소 등 무용계의 양적인 변화는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본 연구자가 대학 내에서 본 부용계의 현상은 한 동안 얼짱, 몸짱 등 외면적 구조에 치중이 되어 가급적 키 크고 얼굴이 예쁜 무용 지망생에 대한 탐미주의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사실 상기내용의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교육적 성향이 무용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교육받은 무용인들이 일면적 무용예술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2009, pp.45-46) 국내의 일반교육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일반화 교육이 입시중심으로 인해 거의 부재한 현실이며,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재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대학에는 무용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용교육의 대부분이 입시, 콩쿨 경쟁, 비교 등의 왜곡되어 있는 사회상으로 개별적 성격의 미적 요인이 무시되거나, 은폐되는 성향이 있었다.

철학자 이남인은 “분과학문의 소통이 결여된 철학은 공허와 자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용계의 일반적 상황 등으로 볼 때, 원초적이며 본질적, 근원적인 진리로 무용예술의 정의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재조명 할 필요를 갖게 하였다 .

V. 결 론

입시중심의 교육, 콩쿨경쟁, 탐미주의, 대중화 부족, 집단주의와 같은 현상이 지속 되어온 무용계의 상황에서 무용예술의 정의에 내포된 요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화 중심에 있었던 무용예술의 신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외형적 관점에서 내.외면의 조화를 이룬 인격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용예술의 완성은 내.외면적 구조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는 무용인이 자아상을 형성 할 때 외면적 구조에 의한 유물론적 관점에 중심을 두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형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무용인의 움직임 역시 선한 물질과 같이 가장 선한 움직임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가장 순전하고 진실 된 생명력을 담은 동작 연구로 예술화 시켜야 한다. 동작 즉 움직임은 무용예술의 절대적인 수단이기에 개인의 소견에 옳은대로 또는 사회변화 및 유행에 따라 무조건적, 무감각적, 무책임적으로 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물질이 절대적인 선한 도움을 인간에게 줌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듯이 환난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의지와 진정성, 책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본연의 아름답고 선한 움직임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사상과 감정이 표출되어 영향력을 끼침으로 무용인들은 진리와 선함을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는 행복을 추구한다.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인간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주제, 내용으로 무용예술가의 사상을 가장 전인격적으로 발전시켜 관객에게 좋은 양식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사상과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넷째, 동작 및 기교위주, 인위적 조명, 작품성과 격리되어 있는 의상, 획일적 분장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무오한 무용예술로서의 종합적, 심미적, 영원성을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표피적 꾸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외면의 진실과 성실함의 조화로 감동을 주고 받는 것이다. 이는 인류역사에서 항상 존재한 무용에

술이 사회적, 시대적, 유형적, 신체적 요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온 만물의 거짓 없는 현상적 진리를 마음으로 상기하여서 하나님의 미적 진리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 째,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무용예술의 첫 번째 기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으며 나아가 종교적 힘과 관계성은 늘 존재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듯 톨스토이는 예술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듣지 않아도 되는 말과는 달라서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감염시켜 이를 경험시킨다고 하였듯이 무용인들은 이러한 감염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에 진 에드워드 비이스의 형식과 내용의 일치, 톨스토이의 가정의 엄마, 아내의 비유처럼 곱게 단장한 외형이 아닌 내면과 일치된 성경적 무용의 정의를 무용작품과 움직임에 담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왕기 (1999). 『총칼없는 전쟁, 문화사역 이야기』.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딕 아담스 (2006). 『종교와 무용』. 서울:당그래.
박순자 (2012). 『성서에 의한 무용창작의 완성과 조건』. 서울:헤민북스.
앤 스티븐슨, 유아람 옮김 (2012). 『춤, 몸으로 예배하다』. 서울:예수전도단.
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서울:나침반.
톨스토이, 이철 옮김 (2008).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범우사.